

스마트팜으로 농업 경쟁력 키운다

무주군-씨앤아이레저사업-CJ푸드빌-하이테크팜, 생산시설 구축·운영 업무협약

무주군이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에 대과종 딸기 등 신상품을 도입하고 여름딸기를 육성,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스마트팜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30일에는 무주군청에서 씨앤아이레저사업(주), CJ푸드빌(주), 하이테크팜(주)과 스마트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첨단 스마트팜 생산시설 유치와 운영, 대기업과 연계한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성사가 된 것으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와 '새 소득원 발굴 및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영민 씨앤아이레저사업(주) 차장, 이치형 CJ푸드빌(주) 본부장, 고영학 하이테크팜(주) 회장은 이날 협약을 통해 규격화 된 딸기 및 신 소득 작목을 1년 내내 생산·유통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다.

△무주군에서는 1ha규모의 첨단 스마트팜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노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 애플테마파크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관한 행정절차 지원, 그리고 농업기술 교육장 등을 제공하게 되며 △씨앤아이레저사업(주)에서는 해당



무주군은 30일 무주군청에서 씨앤아이레저사업(주), CJ푸드빌(주), 하이테크팜(주)과 스마트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 시설 및 토지 내에서의 노지 스마트팜 설비 투자와 운영, 운용기술 및 도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CJ푸드빌(주)에서는 무주군이 생산하는 농산물(딸기, 채소 등)의 우선 구매와 유통에 적극 협력하며 △하이테크팜(주)에서는 첨단·노지 스마트팜 시설 설치공사를 비롯한 기술이

전, 대과종 딸기 종자의 보급과 신상품 개발 및 교육,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전량 유통, 첨단농업 기술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스마트팜 도입

은 돈 버는 농업, 도시민들이 찾아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녹아든 것"이라며 "행정을 비롯한 생산여건, 첨단기술, 유통 등 최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을 하는 만큼 우리 군이 주력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과 새 소득원 육성, 인구유입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스토리 공원 또한 사과뿐만 아니라 사계절 딸기, 다양한 체험 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방문객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나서

무주군, 주민 공청회 열고 용역 내용 공유·의견 청취

무주군은 30일 전문회의의 집 2층 강당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국가예산 확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와 (주)지반과건설 이병기 대표, (주)씨앤아이레저사업 본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부터 추진 중인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2022. 7.)을 통해 선정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가뭄, 대설, 기타재해 위험지구 72곳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하천정비와 우수관로 개량, 낙석

방지망, 사방댐, 저수지 준설, 염수분 사정차, 제제보강 등 저감종합대책 수립(안), 시행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등이 공유됐다. 또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처럼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곧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분야별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진안군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

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위탁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사업장 소재지인 진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해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는 30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무주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최

제1차 추경안 심의·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는 30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의원발의한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7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 요구'를 주제로 대표발의 하고 임

시회 상정안건 검토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박찬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맑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언제나처럼 담담하고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해야"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5분발언을 하고 무주군에 단 하나뿐인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유가족과 조문객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접견실이 3곳밖에 없어 장례를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장소가 협소해 조화 등 각종 물품을 놓을 공간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치실, 입관실 출입과 출상, 부식 운반이 모두 한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가족이 엄숙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는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줘야 할 장례식장 직원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근무환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장례식장이 최근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환해 불편함을 겪었지만 여전히 시설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다양한 외부 조문객이 드나드는 장례식장은 무주군의 인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장례복지는 물론,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을 통해 무주군을 깨끗하고 편리하며 친절하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모두 개선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전 군민 10만원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장수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올해 3월 16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으로 총 2만 1,700명이다.

지원금 규모는 21억 7,000만 원으로 전액을 군비로 지급하며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신청·지급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지급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주요 초점을 뒀으며, 지난 15일 장수군의회가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보탤다.

장수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2020년 5월 제1차(1인당 10만원) ▲2021년 10월 제2차(1인당 5만원) 지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안정적 보급종 콩 재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안군은 30일 보급종 콩재배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콩 농사는 기계화로 농사가 가능해 콩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군은 국립종자원과 계약을 맺고 보급종 신품종 재종단지를 운영하며 정부 보급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면적 15ha를 재배해 생산량 45톤을 얻어 국립종자원이 수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 교육은 국립식량과학원 이상복 민간전문가를 초청해 우리군에 맞는 콩 파종 적기, 습해 방지를 위한 논 콩 중 방법 등 고품질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콩 재배기술에 대해 교육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